

51. 호텔 청소 작업자에서 발생한 조갑백반

성별 여 나이 51세 직종 호텔서비스업 업무관련성 높음

1. 개요: 안○○은 2003년 9월 욕실청소 과정에서 오염물제거를 위해 바닥을 채워 놓은 오염제거제(과산화수소)에 노출된 두 달 후 손과 발에 조갑백반이 발생하였다.

2. 작업환경: 고급호텔에서 룸메이드 업무를 하였다. 주로 객실청소와 욕실청소 등의 업무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였다. 주 1회 휴일이 있었다. 소속된 회사는 인력 파견업체이고, 실제 일한 곳은 서울 H호텔이었다. 같은 호텔에서 1993년도부터 2005년 6월 그만 둘 때까지 동일한 업무를 했었다. 근로자는 2003년 9월경 출근하여, 아침에 객실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화장실 바닥에 물이 차있었다고 생각했다. 평소 한국인들이 투숙하는 경우, 욕조 밖에서 샤워를 하다 물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경우 바닥에 시트를 깔고 물을 흡수시켜 짜내는 방법으로 물을 제거했다고 한다. 사고 당일에도 특별히 색깔이 있거나 냄새가 나지 않아 물이 차있다고 생각했고, 같은 방법으로 물기를 제거했다고 한다. 사고 이후 그것이 물이 아니라 바닥의 오염물 제거를 위한 화학약품(과산화수소)이라는 것을 알았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특별한 질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신장질환, 결핵, 간질환, 항암치료 경력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습진, 족부백선 등의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술, 담배는 하지 않았다. 가족 중에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가족 중에 습진, 족부백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 사고 당일 화학약품에 노출된 이후 동료직원들의 염려에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 계속 다른 작업을 했으나 당일 오후부터 갑자기 손이 하얀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하얗게 변했고, 아프거나 따갑거나 하는 증상은 없었다. 저녁쯤 되서 다시 정상적인 손모양이 되었고, 이후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다가 2달쯤 경과 후 손톱과 발톱에 세로줄이 생기고 갈라지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4. 결론: 안○○의 조갑백반은

- ① 입사 전 조갑부위를 포함한 특별한 피부병변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 ② 과도한 과산화수소 노출 이후에 조갑백반이 발생하였으며,
- ③ 노출 후 일정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발생했다고 하나 이는 다른 환례에서 제시한 잠복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하며,
- ④ 조갑백반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바,

조갑백반은 작업 중 과산화수소 노출 사고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